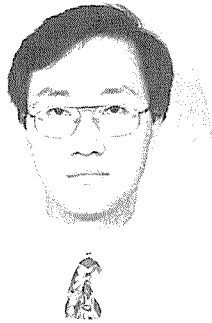


일본의 특석법 폐지가 한국석유산업에 미치는 영향



박 해 명

〈유공 석유사업팀 과장〉

지 난 3월말로 일본의 「특정석유제품수입잠정조치법」(이하 특석법)이 폐지되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 혹은 연구소 등에서 특석법 폐지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일본의 개별 기업 혹은 일본 석유업계 차원에서의 준비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이제 이를 참고로 특석법 폐지가 한국석유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봄으로써 기회요인을 찾아 보고자 한다.

1. 특석법 폐지

특석법은 1980년대 초반 세계적

으로 석유제품 공급과잉이 발생했을 때 이를 소비국에서 흡수한다는 국제협조차원의 명분하에서 일본의 석유제품 수입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10년간 한시입법으로 시행된 법률이다. 석유공급의 대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던 일본으로서는 안정공급의 확보가 최우선 과제였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 석유정제업자에게만 제품수입을 허용하려는 취지하에 특석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갖춘 업자에게만 특정석유제품(휘발유, 등유, 경유)에 대한 수입을 허용해 왔던 것이다.

- ① 대체생산능력(긴급시 원유정제를 통한 석유제품 생산능력)
- ② 비축능력
- ③ 품질조정능력(환경 및 소비자 보호 차원)

특히 1990년의 걸프전 때 아·태 지역의 제품수급이 악화되어 국내 소비분에 대하여 제품수입에서 원유정제를 통한 국내생산공급 우선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제품수입량 자체도 감소됨에 따라 석유제품수입은 단지 국내의 수급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만 수행하여 왔던 것이다.

한편, 1978년의 제 1차 오일쇼크

<표-1> 석유제품의 국내외가격차

(단위 : 배)

	미국	독일	한국	싱가포르	중국
나프타	0.89	0.94	1.04	1.24	0.51
보통휘발유	3.50	2.02	1.57	3.72	4.69
경유	2.30	1.04	2.28	2.08	3.16
B-C유	1.92	2.02	1.06	2.59	0.94
환율	101.19	62.8	0.13	66.4	11.7

<주> 1. 국내외가격차 = 일본에서의 가격(¥) / (환율×해외가격(현지통화))

2. 환율 = ¥/현지통화

<자료원> 「산업의 중간투입에 관련된 내외가격조사」(통산성)

이후 일본에서는 국가행정지도에 의해 가정용 등유, 산업용 경유와 중유 등 생활필수품인 연료유 가격은 인상이 억제되는 가운데 사치품으로 간주된 휘발유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됨으로써 국제가격구조와 상이한 가격체계를 초래하게 되었고 이러한 왜곡된 가격체계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휘발유만이 유일하게 채산성 있는 유종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전반적인 규제완화의 흐름 속에서 석유제품의 국내외 가격차이를 시정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입업자의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있던 특석법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단 제품비축의무와 품질관리책임은 석유비축법과 휘발유판매법의 개정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제품비축과 품질조정의 의무만 이행하면 제도상 누구라도 석유제품수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2. 일본 석유산업의 변화

이상에서 특석법이 도입된 배경 및 그 폐지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그러나 일본의 특석법 폐지가 한국 석유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기에 앞서 일본석유산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하여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석법 폐지에 따른 석유제품유통과 석유제품가격의 변화를 예상해 보자는 것으로써 이에 관하여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서 다시 언급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한국석유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특석법이 폐지되면 해외로부터 싼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현재 원매사들이 국내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국내의 석유제품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내외가격차를 고려

할 때 휘발유의 수입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아·태지역의 석유수급상황을 고려할 때 수입물량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지만 2~3%에 불과한 업전물량의 시황영향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은 작지 않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업전은 한국에서의 부판판매와 유사한 개념임)

따라서 원매사를 중심으로 한 석유업계로서는 그러한 가격인하가 향후 원매사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전에 긴밀한 사전협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의 석유업계는 특석법 폐지가 임박한 '96.3월 초에 왜곡된 국내가격구조(휘발유高, 기타유종低)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신가격체계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① 지역별 시황에 따라 특약점에 대하여 실시(최대 15~20¥/l) 하던 사후정산을 폐지함(지역별 수송비 차이에 따른 2¥/l 이내의 할인은 인정함)
- ② 휘발유의 경우 사후정산을 고려한 종래의 가격수준 대비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함
- ③ 등/경유는 종래가격 대비 15~20% 높은 수준으로 유지함

이렇게 될 경우 가격구조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가격수준 자체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원매사의 경영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 물론 이러한 신가격체계가 전 원매사에 걸쳐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두고 보아야겠지만 어쨌든 석유산업자유화를 앞두고 있는 국내석유업계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특석법 폐지 후의 휘발유 유통망은 수입공급물량의 한계를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수입제품이 특약 점을 통하거나 직접 주유소에 공급 되는 형태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통판매업자가 공동으로 또는 외국 석유회사와의 합작으로 신규 유통망을 개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일본의 유통산업(Shopping 산업) 발전추이를 볼 때 대규모 주차장을 겸비한 교외의 Shopping Center에서 점포에의 고객유인 수단으로서, 극단적 저가판

매 전략하에 저가의 수입석유제품을 공급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한국 석유산업에의 영향

일본의 특석법 폐지가 한국석유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적인 영향으로는 첫째, 신규 석유제품 수입업자가 국내 정유사의 잉여제품을 수입하여 일본시장에 판매하려 할 경우의 국내시장 경쟁완화효과를 들 수 있다. 이미 일부 정유사에서는 일본으로 휘발유 완제품을 수출한 바 있으며 향후 상사, 전농, 대규모특약점 등을 대상으로 수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둘째, 국내정유사 혹은 잠재적 시

장참입자들이 직접 일본의 석유제품 유통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일본시장이 이미 성숙된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단독으로 신규시장을 개척하기보다는 기존 유통업자의 유통망과 한국 내 정유사의 잉여제품을 활용하는 전략적 제휴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간접적인 영향으로는 특석법 폐지 후 일본석유시장의 경쟁환경변화 및 석유업계의 대응양상이 한국 석유업계에 Implication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한국석유산업은 그동안 지속해 온 정유사간 설비증설 및 시장확대 경쟁으로 정제마진의 하락을 초래해 왔으며, 각 정유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곧 맞이하게 될 석유산업자유화의 초기에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향후의 경쟁구도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체질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지 아니면 과도한 시장비용에 의한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끝날지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지금까지 일본 석유업계가 걸어온 길을 살펴 보고 특석법 폐지 이후 일본 석유업계의 대응과 그 결과를 주목한다면 한국석유업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유도해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